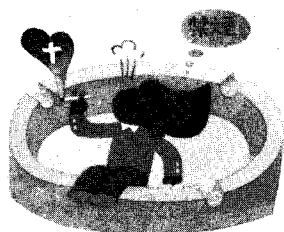


##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실천



신동천/연세대의 예방의학교실

지난해 12월 27일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법률이 발효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공공건물,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정한 약속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이 약속은 왜 필요하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또 앞으로 이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겠는가? 잘 지켜

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런 몇가지 문제를 되새겨 봄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실천의 원년이 되는 올해의 금연운동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담배와 건강에 관한 최근의 관심은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 본인이 받는 건강피해 보다는 비흡연자들의 수동적인 피해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비흡연자들은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므로 그 건강피해의 정도가 크든 작든간에 피해로부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로부터 받는 건강피해 즉, 간접흡연의 영향은 매우 크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미국환경보호부에서는 이미 담배연기는 명확한 발암물질이며, 간접흡연은 암을 유발시킨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그간의 모든 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해진 것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올해의 세계 금연운동의 주제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년부터 지키기로 한 이 약속은 국민들의 건강보호는 물론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담배연기없는 깨끗한 환경의 창조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를 가든 담배연기가 자욱한 공간에서 살아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가는 식당에서도 담배연기와 함께 식사를 해야했고, 은행에 불



일이 있어 가더라도 담배연기와 만나야 했으며, 다방이나 레스토랑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병원, 버스나 택시에서도 담배연기로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리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또 나아지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장소 흡연규제는 우선 규모가 큰 시설과 의료시설, 교통시설에 대하여 실시되어지나 앞으로는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리라 본다.

비단 법으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안다면 흡연자들은 장소에 따라 흡연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 식당 등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영향은 같은 공간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된다. 좁은 식당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와서 식사를 하며, 아빠는 담배를 열심히 피워대고 아이들과 엄마는 담배연기가 싫어 피하는 광경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담배를 끊어 아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된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가 비록 법제화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각 공공장소나 기관의 관리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흡연행위를 감시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각 교회나 관심있는 사회단체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들이 우리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장소 흡연규제법을 잘 지키는 일은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영위하고 수준높은 사회임을 자부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계몽, 교육, 감시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여러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